

“하객 50명으로 줄였는데 환불 왜 안되나요”

광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예약인원 줄여주지 않은 음식점

결혼식 앞둔 신혼부부들 부글부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예비 신혼부부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집회를 금지하면서 결혼식 하객을 50명 이내로만 불러야 하는데도, 음식점측은 기존 계약에 맞춰 비용을 환불해주지 않고 있어서다.

광주시 홈페이지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신혼부부들의 불만이 줄을 잇고 있지만 민간 업체와의 계약으로 해결할 수 없어 광주시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가 코로나19 방역 대응 체계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한 2일, 결혼을 앞두고 음식점 예약을 했던 신혼부부들의 불만 섞인 민원 전화 수백통이 쏟아졌다.

한 예비신부는 “50명을 모시고 결혼식을 어떻게 하느냐”며 울음을 터트렸고 “음식당 입장 인원이 50명으로 줄였지만 최소 식당 예약인원은 그만큼 줄여주지 않아 환불받기도 힘들다”는 신혼부부들의 불만이 대부분이었다.

방역대응체계가 상황 조정되면서 실내 행사 참여인원이 50명 이내로 제한됐지만 음식점들은 결혼식 때 최소 식당 예약인원을 200명~250명 정도로 계약한 점을 들어 인원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 신혼부부들의 불만이다.

실내 예식 참여 인원이 50명에 불과한 데도, 200명으로 잡아놓은 식당예약인원은 30% 수준만 줄여 140명분 식사비용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온라인 광주결혼준비커뮤니티 사이트인 네이버 ‘결준비’ 카페에는 음식점의 최소 식당 예약인원 문제와 관련된 문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한 회원은 “신랑·신부가 지인들 축하도 받을 수 없는데, 음식점은 자기들 돈 벌기에만 급급해 위약금을 내라는 등 ‘배째라’ 식 운영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사회적 거리두기 2, 3단계에 대한 결혼식장 대책 마련해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온 뒤 3705명 이 동의한 상태다.

오는 11일 결혼을 앞둔 직장인 A(여·

29)씨는 “예식을 돕는 관계자들을 포함하면 사실상 음식점에는 40명 가량만 입장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이미 한차례 연기를 해 더 연기하기도 어렵다”고 발을 동동 굴렀다.

민원이 빗발치는데도 음식점들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 고작 10~20% 수준으로 최소 식당 예약인원을 줄여준다거나, 예식을 늦추고 결혼식 이후로는 사실상 이용하기 쉽지 않은 식사권 이용 기간을 늘려주는 식의 형식적 대안만 내놓고 있다.

음식당들은 별도의 대관료 대신 식당

최소 예약인원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어 무작정 줄이기도 벅잡다는 입장이다.

한 음식점 관계자는 “웨딩업계도 코로나 사태 속에 매출이 10분의 1로 감소한 상태”라며 “예식에 투입되는 기본 인력과 장비를 생각하면 보증인원 일부 감축도 상당히 배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도 “개인 간 계약 관계라 지자체가 개입하기 어렵다”면서 “음식당측과 신혼부부들 간 윈윈한 해결을 권고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난감해하고 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실내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 탓에 지난 5일 광주시 광산구 한 음식점에서 실내로 들어가 지 못한 하객들이 식당 입구에서 예식을 지켜보고 있다.

5·18과 2·28운동의 기억과 연대

전남대·경북대 연구원 10일 영호남교류학술대회

영호남 지역 국립대학교 연구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영호남의 역사와 인문학을 논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전남대학교 인문대학·인문학연구원·호남학연구원과 경북대 인문대학·인문학연구원·영남문화연구원 등은 공동으로 10일 오후 1시 30분 경북대 인문한국전 흥관 학술회의실에서 ‘제2회 영호남 교류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영호남을 대표하는 양 대학의 인문대학과 인문학연구소가 한자리에 모여 교류와 협력, 상생의 발전방향을 구축하기 위해 기획했다.

‘기억과 기록: 광주와 대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광주와 대구의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2·28 민주운동, 국

채보상운동, 5·18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기억과 기록의 양상, 기억의 의미와 연대의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황지우 시인과 이창동 영화감독이 기조발제 및 대담에 나서 문학과 영화에 있어서의 기억과 기록을 짚어본다.

정경운 전남대 교수가 ‘역사를 증언하는 여성의 몸과 목소리’, 김경남 경북대 교수가 ‘국채보상운동 기록의 분산 실태와 아카이브화 방안’을 주제로 각각 5·18 민주화 운동과 국채보상운동의 기억과 기록의 방안을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박용환 경북대 교수는 ‘2·28 민주운동의 연원, 대구 3·1운동의 기억과 기록’을 문학의 관점에서 살피고, 박구용 전남대 교수는 ‘5·18, 기억 연대, 연대 기억’을 통해 기억 연대의 의의를 철학적으로 조명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전북대, 국립대 최초 ‘코로나19 장학금’ 지급

전북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재학생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장학금은 1학기 납부 등록금의 10%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상한액은 전북대 재학생 1인당 평균 납부금 196만원의 10%인 19만 6000원으로 책정됐다. 지급 대상은 1학기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2학기에 등록하는 재학생이며, 지원하거나 제적한 학생은 제외된다.

전북대는 이번 장학금 규모가 19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원석 전북대 총학생회장은 “국립대학 최초로 재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한 학교의 용단에 감사하다”며 “온라인 수업으로 흐트러진 면학 분위기를 다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 남구, ICT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

광주시 남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ICT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선보인다.

기존의 방문건강 관리사업 운영의 노하우를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과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CT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은 스마트폰을 소지한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동구 인문산책길 주민문화해설사 24일까지 모집

광주시 동구가 ‘동구 인문산책길’의 역사와 이야기를 소개할 주민문화해설사를 모집한다.

6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지난2동 등에 조성 예정인 ‘동구 인문산책길’ 주민문화해설사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동구 인문산책길은 동구의 인물·장소 등 인문자원을 발굴해 이야기로 엮어내고 산책길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조성

대 이동순 교수 측의 협조로 7월말까지 스토리텔링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해설사는 19세 이상 광주시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15명을 선발한다.

지원방법은 동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제2회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 시작

9월 25일까지 아이디어 접수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공동 개최하는 ‘제2회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가 시작했다. 이들 기관은 오는 9월 25일까지 대회에 참가할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이번 대회는 교육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교사·학생들의 데이터 해석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총 2개 부문이다. ‘데이터 리터러시’ 부문은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등학생들이 3명 이내로 한 팀을 꾸려 참가할 수 있

다. 지도교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창업 아이디어’ 부문은 대학생과 대학원생, 일반인 대상으로 개인 또는 최대 3명으로 이뤄진 팀 단위 참가가 가능하다.

대회는 두 차례 심사와 최종 심사가 순서로 이뤄진다. 1차 발표는 10월12일, 2차 발표는 11월6일로 예정돼 있다. 최종 심사와 시상식은 11월27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부터는 ‘아이디어상’이 신설됐다.

최우수상은 부문별로 2차 심사를 통과한 3개 팀에 대한 최종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의 상장과 상금 100만원씩 수여한다. 이밖에 우수상(4팀)과 아이디어상(2팀)·장려상(4팀)도 선정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

광주 북구, 연말까지 놀이환경 진단사업

세이브더칠드런과 업무 협약

광주시 북구가 지역 아동들이 뛰놀기 좋은 자치구로 거듭나기 위해 시민단체와 손을 잡는다.

6일 북구에 따르면 이날 북구는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NGO)와 업무협약을 맺고,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연말까지 ‘놀이환경 진단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공원이거나 놀이터를 전수 조사하고 주민·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지역 특성에 맞는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북구는 아동·주민 조사단을 구성해 행정적 지원을 하고, 세이브더

칠드런은 놀이환경 진단 기획, 전문 조사업체 운영·관리, 결과보고회 등을 담당한다.

사업은 7월 중 180여 명의 아동·주민 조사단 모집을 시작으로 8월부터 89곳의 현장에 대한 비대면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모니터링 결과는 전문 리서치기관과 함께 분석 후, 11월 중 놀이환경 개선 방향의 견수령을 위한 워크숍과 성과 공유회에 반영된다.

북구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놀이환경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증진과 관련한 정책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방치된 묘지 70%(추정)

☎ 062-412-2800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광주에서 30~40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수목장 묘지이장 문의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